



전국 > 인천

인천 평생교육, 어디로 가야할까

27일 제4차 인천교육정책포럼 개최

(인천=뉴스1) 주영민 기자 | 2013-09-24 01:42 송고

인천교육정책포럼은 27일 오후 1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서 ‘인천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’를 주제로 ‘제4차 인천교육정책포럼’을 개최한다.

이번 포럼에서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노희숙 팀장이 ‘인천 평생교육의 방향과 진흥 정책’을 주제로 새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인천의 평생교육 현황과 추진사업 등을 검토한 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한다.

평생학습 사례발표로 ▲김은경 남구청 평생학습팀장의 ‘학산선비대학 운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’ ▲김희수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관장의 ‘인천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발전방향’ ▲남상인 인천YWCA 사무총장의 ‘여성사회교육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본 여성 평생교육의 변화와 방향성’ 등이 이어진다.

정옥경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임현정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.

포럼 관계자는 “이번 포럼은 인천의 교육계 인사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계자, 평생교육기관 종사자,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강좌 형식으로 진행된다”고 말했다.

Copyright © 뉴스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

